

민주 당무감사 '호남물갈이' 촉각

시도당·광주전남 지역위원회 대상

내년 총선 사전 정지작업 여부 관심

민주당이 17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당무감사에 돌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과 관련해 이번 당무감사 자료가 '총선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활용될지 여부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조직국 간부 등 2명을 감사반으로 투입해 광주시

당과 광주지역 7개 지역위원회, 전남 도당과 11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나섰다.

지역위원장이 새롭게 선임된 광주 남구와 순천지역위원회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지방 공조 정비 현황과 문제점 ▲지역위원회 당무처리 절차 점검 및 개선 방안 ▲의사소통구조 확보를 통한 지역 민심 당무 반영 ▲2012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지방조직 기반 구축 등을 중

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반은 당직자와 일선 당원은 물론, 지역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의 지역구 관리 및 지역민심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조직운영이나 지역 민심 반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 지역위원회를 집중 점검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대선 의원과 초선 의원에 대한 지역 여론의 관심도 등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국 모든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례감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감사 시점이 총선을 위한 지방조직 기반 구축 등을 중

지역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호남 물갈이론'이나 '중진의원 수도권 진출설' 등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당무감사가 '총선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정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감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당무감사에서 사고지역 위원회 수준으로 낙인찍히거나 지역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결코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공정 일삼는 대기업, 상생 걸림돌"

지경위 의원들 질타...전경련 발전적 해체 주장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7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적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관행을 유지, 오히려 상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전적 해체까지 주장, 논쟁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본연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해 심지어 떡집, 어묵가게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영역 침범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강창원 의원은 "전경련이 최근 국민과 국회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전국경제인로비 연합회'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던 전경련의 형태는 아직

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회백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동반성장 문제가 반(反) 기업정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호대립적이며 일방적인 수혜자와 피해자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사회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투표강행 오세훈

시장직 던질까

한나라 당내 거취 논쟁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7일 한나라당 내에서 오세훈 시장의 거취 논쟁이 일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시장직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시장직을 걸고 벼랑 끝에 서야 주민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최근 오 시장에게 "시장직을 걸어서 안 된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민투표에 앞서 추가 접촉을 하더라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게 한 해심당직자의 설명이다.

이 당직자는 "투표할 개한 조건인 투표율 33.3%를 넘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직 사퇴 문제는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태 의원은 "투표율이 저조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따질 게 뭐가 있느냐"며 "오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성호 의원은 "투표할 개한"을 전제로 시장직을 걸 것을 제안했고, 서울시장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2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투표율이 25%가 안될 경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누가 1등할까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7일 대구를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순학규 대표와 정세균·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대구 스타디움 상황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끝내고 트랙에서 달리기 하고 있다.

연광뉴스

선진·국중, 당대당 통합

새 대표 심대평씨 추대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국중련)이 17일 당대당 통합을 통해 국중련의 심대평 대표를 새 대표로 추대키로 합의함에 따라 총정권의 정치지형 변화가 주목된다.

선진당과 국중련은 이날 열린 양당 통합기획단 2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나 통합 신당의 명칭과 지도체

제, 공천제도 등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하지만 양당이 오는 31일까지 통합 논의의 마무리 짓기로 한데다 양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선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만큼 중대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한 예정대로 통합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통합 합의

에 이른 것은 선진당 변영준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대표를 통합정당의 새 대표로 추대할 것을 제안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변 대표는 통합신당 대표로 심 대표를 추대할 것을 요구하는 국중련과 달리 선진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심 대표 추대'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통합 물꼬를 텄다.

양당이 통합의 밑그림은 그렸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당을 갈갈하고 있는 만큼 중대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한 예정대로 통합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제역으로 멍든 축산농가

이번엔 캐나다산 쇠고기냐"

농수산위, 수입 대책마련 촉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17일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최근 태풍과 폭우로 발생한 농수산물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해결 의원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격 타결되면서 쇠고기 수입국은 캐나다·미국·호주·멕시코·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늘어났다"며 "쇠고기 수입 증가로 쇠고기 가격이 폭락,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한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수입 결정을 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멍들어 있는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축산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으며, 민주당 소속 최인기 농림식품위원

장은 "이번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과거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농민들에게 수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특별위로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안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한 정부의 재해 복구비 내용을 보면 소극적이고 일시방편적 뉘앙스"라며 "수해가 정부의 재해 예방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 등에 따른 것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자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 적합 인물

박근혜 19.4% > 문재인 17.9% > 손학규 16.6%

기자들이 차기 대통령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선 후보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9.4%의 지지를 얻었으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결리서치에 의뢰해 현역기자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을 묻는 항목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9.4%의 지지를 얻었으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각각 17.9%와 16.6%로 뒤를 이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3.9%,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2.6%를 얻었으며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30.7%나 됐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는 박근혜 전 대표가 51.2%로 가장 높았으며 손학규 대표 14.1%, 문재인 이사장 7.3%로 나타났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는 복지를 꼽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성장(25.5%), 사회통합(21.3%) 순이었다.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8%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음성채널의 신기원

대한민국 최초 무료음성커뮤니티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제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일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 사 이 오

번호 1,688-5425

보통요금 >>> 11번 음성소셜링 >>> 07번 여행정보 >>> 12번 연안관광 >>> 09번 매니저상담 >>> 10번 1:1 대화방 >>> 19번

14년 전통 하트톤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비회원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양·김정수)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